

# 大學教育의 發展을 위한 當面課題

## —學部教育을 中心으로—

李 洙 德

(서울女大 教育心理學科 教授)

學部教育의 正常化와 지속적인 發展을 가져오려면, 먼저 각 대학이 학부교육의 目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課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現時點에서 우리 나라 現實에 適合한 哲學的, 社會·心理學的, 그리고 經驗學的 側面에서 銳意 研究·檢討하면서 항상 새로운 眼目으로 未來社會를 바라보는 進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I. 머리말

우리 나라의 大學教育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1970年代 초반부터 대학교육의 改革事業이 推進됨과 함께 各大學마다 教育內容과 教育方法의 反省檢討를 거쳐서 그 改善策을 모색하는 데 상당한 노력들을 傾注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 大學教育의 正常化와 發展을 위한 週期的인 관심과 노력은 1980年代에 들어서면서 本格化되었다고 하겠다. 그것은 바로 1980年 7月 30日에, 政府가 발표한 「教育正常化方案」에 따라 具體化된 「大學教育改革案」의 발표에서 대학교육의 正常化 작업과 개혁사업이 促進된 셈이다. 그 개혁안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나라의 잘못된 대학교육을 正常화하려는 行政的인 決斷으로서, 대학교육에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質的 向上은 그렇게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계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그것은 마치 한 인간이 성숙에 이르는 성장발달의 과정과 비슷하여서, 하나의 대학이나, 한 나라의 대학들을 묶어서 생각할 때,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은 영속적인 課題라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정상화와 발전과정에 있는 現時點에서, 우리 나라 대학 특히 學部教育(undergraduate education)이 해결해야 할 當面 課題 中 그 해결이 시급하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개 사항만을 추려서 論議하려고 한다.

### II. 學部教育의 性格과 目標設定

우리 나라의 學部教育이 正常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부교육의 性格을 규정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성격규정 여하에 따라서 학부교육의 방향과 내용 및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현 시점에서 우리 나라 대학들의 학부교육의 방향제시가 되는 그 목적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明示할 필요성이 提起된다. 특히 오늘날처럼 과학의 발달과 사회적 변화, 발달이 加速化되고 있는 現代社會에서는 대학교육의 목적과 機能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상당한 挑戰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변천에 따라서 대학의 성격과 기능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대학교육과정 구성과 운영면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흔히 대학의 근본기능을 教授(instruction), 研究, 社會的 奉仕의 기능으로 보는 견해가 一般化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대학에서는 아직도 사회적 봉사 기능이, 대학의 공식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는 면에서의 노력은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오늘의 대학교육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새로운 전문적 지식과, 高度·精密한 技術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大學은 교육의 方向提示가 되는 目標設定과 그 설정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육의 效率性을 높일 수 있는 교육방법상의 부단한 검토와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한국사회가 지향하며 추진하고 있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高度로 발달되어 가는 産業社會는 필연적으로, 풍요한 사회가 흔히 갖는 특징적인 사회문제들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 고도산업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컨대 물질탄능의 풍조와 인간소의 등의 사회병리 현상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중심을 이루는 학부교육을 전문지식과 기술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인간교육을 바탕으로 한 인류사회의 복지실현이란 점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대학교육에서 인간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는 것은, 특히 학부 교육과정에서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요청이 切感되고 있는 나라는 무엇보다 먼저 산업화한 사회인 미국과 일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 近年의 한 論文으로서, 현재 하바드대학의 총장인 디렉 북(Derek Bok)이 발표한 “학부교육의 목적”이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대학의 目的이나 目標意識이 불투명할 때, 대학이 遂行하고 있는 기능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도 없고, 주어진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배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발달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없으며, 따라서 그 교육기관의 구성원들의 활동의 목적을 강화할 수도 없고, 그 대학의 존재이유를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호소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그 기관의 분명한 목표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오늘날과 같이 각종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회적 변화발달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대학마다 나름대로의 分명한 目標를 設定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안정된 발전의 방향을 바르게 잡으려면, 무엇보다도 분명한 방향제시가 되는 목표설정이 선결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학가에서는 학부교육의 방향제시가 되는 目標設定에 대한 깊이 있는 研究나 진지한 論議가 매우 희박한 것 같다.

앞으로 正常的인 학부교육의 방향을 찾고,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려면, 먼저 나아갈 분명한 방향을 찾는 깊이 있는 研究와 論議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 Ⅲ. 敎養 및 專攻課程의 比重과 關聯性

학부교육의 성격과 설정된 教育目標의 實現與否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는 그 대학의 교육과정 구성에서,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학교육의 정상화 방안의 기본방향은 학부교육에서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의 학점배점 비율을 동일수준에서 권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계획과 구성 및 운영은 각 대학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각 대학의 교육과정의 실제적인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혼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은 학부과정의 핵심적 과정으로 중시되어야 할 교양과정이,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학부교육에서 輕視 또는 等閑視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양교육과정을 강화해 보려는 일부 대학의 시도와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 나라 대학들의 일반적인 추세가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전공중심과 전공위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하여 사회가 발전하고, 대학교육의 내용과 質的 水準이 많이 향상된 先進國들의 학부교육에 대한 많은 전문적인 연구와 論議를 거친 귀중한 경험과 結論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줄 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예를 들면, 학부 교육에서 교양교육에 비중을 두는 콜럼비아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다니엘 벨(Daniel Bell)은 “학부에서의 교양과목들은 전공과목 이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전공과목들은 오히려 대체적이고 기초적인 면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다니엘 벨 교수의 그와 같은 주장은 학부교육에서 교양교육의 비중을 잘 표현한 것으로, 고도산업화 과정에 있는 우리 나라 학부교육에서 참고할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부교육에서는 전공과정이 특수한 직업훈련의 성격을 띠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전공과목의 강화설치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은, 학부교육의 성격을 이해 못한 소치라 하겠으며, 학부 교육과정의 구성은 보다 넓은 영역에서 응용될 수 있는 기초과목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 수준 높은 학문적 연구를 위한, 특정 영역의 전문화는 대학원의 기능으로 넘기고, 한편 특수한 기술의 훈련은 기술양성소나, 현직교육의 과제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4년제 대학의 교

육과정 구성에서, 그 대학이 교양위주의 문리과 대학 유형의 대학이 아닌 공과대학, 농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등의 특성화된 대학이라 할지라도, 학부과정에서는 교양과정이 전공과정을 단장하기 위한 걸치배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교양과정이 전공과정과 무관하거나 유리된 교육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학부교육의 정상화는 교양 및 전공과정의 구성과 운영이 학부교육의 성격에 맞게, 상호간 균형 있게 구성되고, 상호보완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고 운영될 때 학부교육의 진정한 면모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Ⅳ. 副專攻과 複數專攻의 현대적 意義

현재 우리는 지식과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계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오늘날처럼 날로 지식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날로 학문의 폭이 넓어지며, 세분화될수록 각 학문간의 연계가 더욱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부과정에서는 하나의 전공분야에만 집착하는 것보다 인접학문분야에 대한 이해와 폭 넓은 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직업세계에 눈길을 돌려 보면 이 필요성은 한층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

대학이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도 학부과정에는 단일한 전공분야의 학문만을 강조하는 대학원교육과는 달리 폭 넓은 교양과정과 전공의 탐색과정이나 전공 기초과정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단일한 전공과정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부전공 아니면 복수전공의 길을 터 주는 것이 학부교육으로 하여금 현대사회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게 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변화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는 거의 모든 전문분야의 학문영역에서 5년도 채 경과하기 전에 이미 습득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낡은 것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전문화에 따르는 지적 고립을 도면할 수 있는 길을 일찍부터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는데, 그와 같은 좋은 기회가

학부과정에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과정을 이수케 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 V. 評價와 質的 管理

학부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올바른 평가제도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질적 관리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해결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앞서 진술한 학부교육목표의 구체성과 명료성에 달렸다고 생각된다.

그 까닭은 학부교육에서 설정한 교육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되었는가를 測定하고 評價하자는 것이 評價 本來의 目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교육성과의 측정, 평가가 정확하고 정밀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尺度역할을 하는 교육목표가 분명하고 구체적일 필요성이 절실히 진다.

특히 평가의 적절 여부가 교육의 質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평가제도나 교육의 질적 관리의 기준설정에는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타당한 평가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졸업정원제도에 따른 일정한 비율의 탈락의 압력 속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시행하고 있는 상대적 평가방법의 기계적 적용은 진정한 평가의 원리에서 벗어나기가 쉽다.

평가원리에 입각해서 평가를 정상화하고, 교육의 質的 水準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정한 교육목표의 달성도를 엄밀히 측정하고 평가하는 目標指向的 評價가 바람직하게 생각되며, 그리고 평가에 임할 때, 설정된 교육목표와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내용과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타당성과 객관성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것이 되어야겠다.

## VI. 大學編制와 學事運營

현재 우리 나라의 학부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에 지장을 주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학부과정이 세분된 학과중심 위주로 조직되어 있고

유사학과들과 협동하고 통합하는 노력이 부족한 면이라 하겠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대학교육 정상화방안」에 따라, 1981학년도부터, 전국의 4년제 대학이 실험대학 체제로 전환하면서 거의 모든 대학이 계열별로 신입생을 모집했던 것이, 1982학년도의 신입생 모집에서는 64%의 대학이 계열별 모집을 外面하고 학과별 모집으로 환원하였고, 1983학년도에는 78%의 대학이, 그리고 금년에는 80% 이상의 대학이 학과별로 모집하는 경향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의 학부교육이 정상화하기 어려운 狀況으로 진전되는 것 같아서 우려되고 있다.

학부교육을 정상화하고 그 바탕 위에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면, 편협하고 폐쇄적인, 학과중심의 보수적이고 과거지향적인 현행 편제의 결함을 과감히 시정하고, 同質 또는 類似學科를 統·廢合하거나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새로운 학과로 전환하는 등의 조정, 계열별 학생모집과 그리고 그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은 급변하는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신축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발전적인 운영방식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한편 학사운영에서 새로운 검토와 개선이 요망되고 있는 것은, 신축성 있게 학사일정을 재편성하고 수업체제를 한국 현실과 사회적 요청에 적합하도록 조정 또는 개선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고등교육의 기회를 계속 확대해야 하는 불가피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일제나 정시제 수업체제, 계절학기제 또는 야간강좌 설치 등의 學事日程과 授業體制 등의 伸縮性 있는 변화와 현실에의 적응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충분한 교육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여건하에서는, 현재의 교육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提高시킬 수 있는 한 방도로서 學期制, 季節制, 短期課程制(Module System), 全日制授業體制 등을 적용하는 大學曆(College Calendar)의 재편성 등 多樣的 方法의 적용과 시도는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Ⅷ. 맺는 말

우리 나라 학부의 교육과정을 正常化하고, 교육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急務하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학부교육의 성격 규명과 교육의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方向提示가 될 수 있는 目標設定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된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현실에 맞는 哲學的, 社會·心理學的, 그리고 經營學的 側面에서 銳意 研究檢討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까닭은 학부교육의 目標設定 如何가 학부교육의 방향뿐만 아니라 그 교육내용과 교육의 성과에 영향을 주며, 중국에는 그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는 基準이나 尺度로서 作用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目標設定의 適切與否가 학부교육의 正常化와 發展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더우기 학부의 교육목표 설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加速化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 발전에 따른 사회적 요청과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學生 個個人的 성장발달을 최대한 도와 줄 수 있는 적절한 배려라고 생각된다.

그와 같은 基本原理의 반영이 바로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을 막론하고, 공통필수과목을 될 수 있는 데로 줄이고 선택과목을 대폭 늘려 주는 것과 副專攻과 複數專攻의 기회를 擴大해 주는 것은 多樣한 個性을 지닌 個個學生들의 필요와 욕구 또는 進路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신축성 있는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방식이라 하겠다.

그리고 학부교육의 정상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려면, 항상 진취적인 개혁을 꾀리고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려고 하거나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보수적이거나 과거지향적인 폐쇄적인 자세에서 탈피하고, 항상 새로운 眼目으로 발전하

는 未來社會를 바라보며,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바람직한 학습경험들을 選定·組織하여, 教授 또는 學習指導에 임하고, 나타난 교육의 성과를 항상 評價, 反省하면서 보다 나은 교육과정을 새롭게 계획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밟으며 발전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학부교육이 정상화될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발전해 가는 학부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하나 더 부언한다면, 학부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각 대학의 發展意慾에 찬 自律的인 自體研究(institutional self-study)가 교육의 정상화는 물론이고 成熟한 대학으로 끊임없이 成長發展해 가는 데, 큰 推進力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 <參考文獻>

- 1) 康宇哲 外 4人, 高等教育機關의 開放體制에 관한 研究, 1982.
- 2) Bell, Daniel, *The Reforming of General Educ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6.
- 3) Bok, Derek, *On the Purposes of Undergraduate Education*, American Higher Education: Toward an Uncertain Future, Vol. I,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1974.
- 4) Conrad, C.F., *The Undergraduate Curriculum: A Guide to Innovation and Reform*, Westview Press Inc., 1978.
- 5) Dressel, P.L., *A Look at New Curriculum Models for Undergraduate Educatio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1979, Vol. 50, No. 4.
- 6) Peterson, R.E., *The Crisis of Purpose: Definition and Use of Institutional Goal*, Educational Testing Service, 1970.
- 7) Soo Duk, Lee, *An Analysis of Institutional Goals Perceived and Preferred by Students, Assistants, Faculty, and Administrators at Seoul Woman's College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e Peabody College, 1977.
- 8) Toffler, Alvin, (ed.), *Learning for Tomorrow: The Role of the Future in Education*, New York: A Division of Random House, 1974.